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기재부,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

- 정부는 2010년부터 경제 정상화와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면서도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함.
 - 본 내용의 ‘201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’ 및 ‘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’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·확정하고 이를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함.
- 2010년도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으로 지원하고, 세출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.
 - 동시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위주로 투자,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원 대책을 마련 후 추진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함.
- 위기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기금·특별회계의 여유 자원 및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.
 - 동시에 국정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·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 조정을 강화할 방침임.
- 한편, 2010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,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성인지(性認知) 예산서*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.
 - 장래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은 국회에 심의·의결을 받게 됨.

*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

- 금번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본 지침에 따라 6월말까지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임.

(2010년도 예산안 작성지침,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,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, 기금운용계획과, 4/28)